

우리 사이를 거닐던 사랑

Love Walked Among Us

- Learning to love like Jesus -

케빈 멘젠

지음

우리 사이를 거닐던 사랑

Love walked among Us

- Learning to love like Jesus -

케빈 멘젠 지음 | 마영례 옮김

예수, 그는 누구인가?

“나는 유대인이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빛나는 모습에 내 마음이 끌린다. 예수님은 매우 뛰어난 기교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 힘껏 미사여구를 늘어놓아도 모두 묘사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엄청난 분이시다. 누구라도 복음서를 읽게 되면 그 속에서 살아 숨쉬는 실존으로 예수님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 한마디, 한마디 속에 그분의 인격이 고동치고 있기 때문이다.”
아인슈타인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삶을 접근하여 제시하는 책 가운데 이처럼 분명하고 감동적이면서도 실제적으로 그분의 삶을 설명한 책을 접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동원 (지구촌교회 담임목사)

풀 밀리는 사랑의 화신이신 예수님의 행적을 통하여 여러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사랑을 주고받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이며 실제적으로 보여준다.

정동섭 (가족관계연구소 소장, VIEW 교수)

영혼을 씻어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께로 당신을 다시 이끌어 줄 것이다.

스티브 브라운 (작가, <Key Life>의 성경 교사)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분명히 드러내 줄 뿐만 아니라 삶을 변화시켜 주고 예수님을 우리의 친구와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자유를 얻게 해준다.

댄 B. 알렌더 (Mars Hill대학원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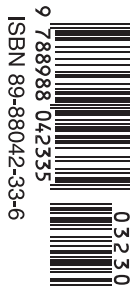
예수님을 보는 것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는 것이다. 이 책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야를 갖게 해준다.

조니 에릭슨 타다 (장애우 단체 <조니와 친구들> 설립자)

풀 밀리는 타고난 이야기꾼이며, 명료하고 세련된 글을 쓰며, 무엇보다 사랑을 소중하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로 철저히 무장하고 있다. 이 책에서 당신은 인생의 가장 위대한 진리를 발견할 것이다.

예수를 한 편의 영화처럼 만나다!

복음서에 소개되어 있는 예수님의 삶과 사랑의 방식을 놀라운 통찰력으로 조명하여 하나의 명료한 그림처럼 만나게 하는 독특하고 감동적인 책이다.



새롭게 만나는 예수!

읽기만 해도 예수님 사랑에 나의 어리석음은 부서지고 예수님처럼 인간을 따뜻하고 거짓 없이 사랑하게 된다.

우리 사이를 거닐던 사랑

우리 사이를 거닐던 사랑

지은이: 폴 밀러 | 옮긴이: 마영레 | 펴낸이: 정근모 | 표지디자인: 박혜정
편집: 김혜정, 배은경 | 초판1쇄: 2002년 10월 16일 | 초판2쇄: 2005년 7월 29일
등록번호: 제22-1904호

펴낸곳: 도서출판 CUP (136-825)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1동 179-56
T.(02)745-7231 F.(02)745-7239 | www.dew21.org | cup21th@kornet.net
총판: DM로지스틱스 T.(02)3489-4300

This edition issued by contractual arrangement with NavPress
a division of The Navigators, U.S.A.

Originally published by NavPress in English
as *Love Walked Among Us*, Copyright © 2001 by Paul Miller.
All rights reserved.

Korean Translation Copyright © 2002 by CUP, Seoul, Korea.

본 저작물의 한국어 판권은 KCBS Inc.를 통해 NavPress와 독점 계약한 '도서출판 CUP'가 소유합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값10,000원

책
읽
기
의
마
영
레
김
정



CUP

차례

들어가는 말 _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 15

사랑은 동정심이다

1부

누군가로 딱 찬 마음 _ 사랑은 분다 그리고 행동한다 • 25

보는 것에 따라 달라지는 마음 _ 사람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 35

“네게 가장 좋은 것이 뭔지 알아” _ 동정심을 가로막는 판단 • 45

“내가 너보다 나아” _ 동정심을 가로막는 독선 • 57

“이렇게만 해야 해” _ 동정심을 가로막는 율법주의 • 68

황금률 _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랑하라 • 80

사랑은 솔직하다

2부

말해야 할 때 _ 솔직함과 균형을 이루는 동정심 • 93

정직한 분노 _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동정어린 경고 • 106

침묵할 때 _ 동정심과 균형을 이루는 솔직함 • 119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나도 그렇거든” _ 솔직하면서도 함부로 판단하지 않기 • 126

사랑은 신뢰한다

3부

사랑의 비밀 _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 141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니오”라고 말하기 _ 다른 사람의 요구에 반응하기 • 154

자만심을 거부하고 “아니오”라고 말하기 _ 순수한 사랑 • 165

적절한 간섭에 “예”라고 말하기 _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사랑 • 177

사랑은 믿음으로 강해진다

4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는 믿음 _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나? • 193

주도권을 내어 드리는 믿음 _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 • 206

친근하게 다가온 낯선 사람 _ 사랑의 직물 짜기 • 220

연합 _ 친밀감을 불러오는 사랑 • 231

사랑은 죽음을 이긴다

5부

겸손해지는 길 _ 낮은 자리를 취하는 사랑 • 247

슬픔을 포용하는 사랑 _ 사랑이 큰 슬픔을 불러올 때 • 260

사랑의 심포니 _ 곤경 속에서 드러나는 사랑 • 270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생명 _ 사랑하기 위해 지불한 대가 • 280

희망의 탄생 _ 사랑하는 삶의 최후 • 291

열린 문 _ 어떻게 할 것인가? • 303



1부 사랑은 동정심이다
Love shows compassion

누군가로 **꽂** 마음



사랑은 본다
그리고 행동한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사셨다. 그 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대와는 판이하게 달랐다. 복음서에 이따금씩 나타나는 이방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유대인으로 구성된 사회 속에서 사셨다. 그 곳은 가족 관계가 두터운 곳이었으며 가족 관계를 떠난 개인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 가족과 일가 친족이 한 개인에게 있는 전부였다. 그들을 잃게 되면 모든 것을 잃었다.

예수님은 서른 살 경에 제자들을 모으고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이스라엘의 마을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하셨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나인성으로 들어가시려다 장례 행렬과 마주치셨다. 누가는 그 때 일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멘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눅 7:11~17).

나인성은 유대 잇사갈 지파가 정착한 갈릴리 남부의 아름다운 계곡에 자리잡고 있다. 구약성경은 그 땅이 쉬기에 좋고 아름다운 곳이라고 말하고 있다(창 49:15). 나인이란 히브리어 단어는 유쾌하게 들리지만 아들을 잃은 어미에게 그날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

아들이, 그것도 독자가 숨을 거두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내야 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도 아니었다. 과부였다. 유대인 여자에게는 아들을 낳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인 반면 아들을 잃는 것은 가장 큰 슬픔이었다. 남편과 독자를 잃었다는 것은 곧 가난한 생활을 뜻했다. 그들과 함께 퇴직금과 연금과 의료보험금에 해당하는 것까지 모두 다 잃었다. 아들의 때 이른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로 여겨졌기 때문에 어미의 슬픔은 죄책감으로 가중되었다.¹⁾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는지를 의아해하는 소문이 이미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온 동네에 퍼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유대인은 보통 하루 일과를 마친 저녁 6시경 장례식을 거행했다. 낮에 과부는 아들의 시신을 마루바닥에 놓고 머리를 빗긴 다음 집에 있던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 입혔다. 그리고 버들가지로 만든 관에 똑바로 눕힌 다음 두 팔을 포개어 주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집 앞에 모여 아들의 장례 준비를 도와 주었다. 유대인들은 여자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여자들이 앞장서서 슬픔에 수치심을 더하며 장례 행렬을 이끌어야 했다. 장례 행렬이 거리를 따라 진행되는 동안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관을 짊어짐으로 그 어미의 고통을 함께 나누었다. 돈을 받고 피리를 부는 사람들과 “마음이 슬픈 이들이여, 함께 울라”를 외치며 장송곡을 부르는 사람들이 행렬 맨 뒤에 이어졌다. 500명 가량 되는 나인성 주민들이 대부분 다 따라나왔다. 그만큼 의미심장한 죽음이었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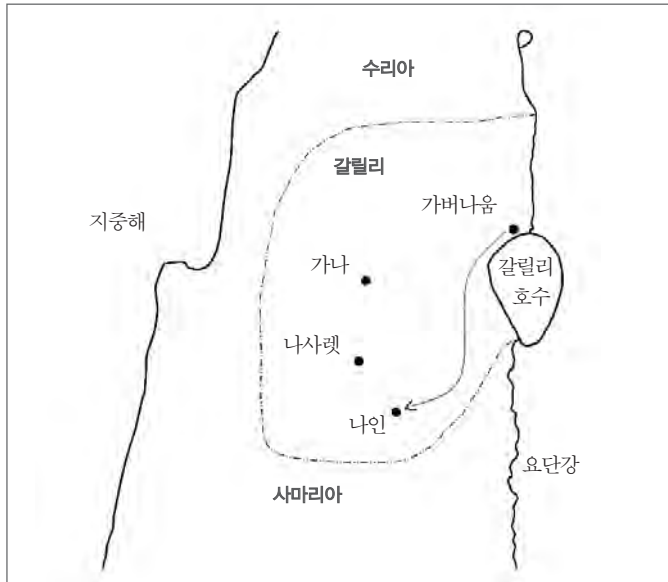
묘지는 예수님의 본거지였던 가버나움으로 이어지는 굽은 길이 나 있는 성 동편에 있었다. 헬리어 원문은 나인성에서 나온 사람들보다 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거의 1,00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장례 행렬이 막 성문을 빠져 나오고 있을 때 예수님도 그 곳에 도착하셨다. 따라서 큰 두 무리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이게 되었다.

과부가 느낀 대로 느끼셨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그 과부를 보셨다. 주께서 과부를 보셨다. 모인 무리나 죽은 아들이 아니었다. 서로 마주친 두 무리가 섞여 구별이 되지 않는 혼란 속에서 주님은 과부를 끌라 내셨다. 그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눅 7:13).

동정심은 예수님의 성품 중 가장 자주 언급되는 감정이다. 누군가에게 동정심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본 예수님의 특성은 무엇인가? 분노나 두려움에 비해 동정심은 상당히 미묘하다. 동정심에 대해 사람들에게 물어 보면 동정심은 사람의 눈을 통해 전해진다고 말한다. 그 눈길은 부드럽고, 온화하고, 친절하며, 근심어린 빛을 띄고 있다. 모든 일을 멈추고 상대방의 감정에 주목하며 귀를 기울인다. 예수님께서서는 말을 다 맺지 못한 채 꿈쩍도 않고 과부를 바라보시며 침묵하셨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눈에 고인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을지도 모른다.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



예수님의 반응이 어떤 모양이었는지 간에 그 반응은 서로 밀치는 수백 명의 사람들로 인한 혼란과 동요 속에서도 눈에 띄는 두드러진 것이었다.

예수님은 거의 죽어가고 있는 여자를 바라보셨다. 우리는 삶과 죽음을 두 개의 분리된 별개의 것으로 본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삶과 죽음 사이에 놓인 중간 상태가 있다고 생각한다. 구약성경을 보면 남편과 두 이들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간 나오미가 고향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 “나를 나오미(‘즐겁다’)라 칭하지 말고 마라(‘쓰다’)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룻 1:20). 나오미는 살아 있었지만 마치 죽은 사람처럼 느껴졌다. 이 과부 역시 나오미처럼 희망을 잃고 삶에서 단절된 채 살아 있지만 죽은 것이나 다를 바 없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녀의 고통을 이해하셨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은 그녀의 입장에서 그녀가 느끼는 세계 속으로 들어가셨다. 소망을 갖게 해주셨다.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그녀의 고통을 함께 느끼셨지만 그 속에 휘감기지는 않으셨다. 그녀가 느끼는 대로 느끼셨지만 또한 그녀의 감정에 휩싸이지는 않으셨다.

그녀가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거쳐야 할 일련의 과정을 예수님께서 방해하셨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현대 심리학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를 조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무릎을 꿇어 우리 딸이 마치 죽을 듯이 울면서 집으로 들어오면 나는 이렇게 말한다. “울지마, 괜찮아질거야.” 정말 괜찮아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이 여자가 소망을 가지고 울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음을 알고 계셨다.

죽은 사람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달리던 차들이 길을 비켜주듯 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무리들도 길 한편으로 비켜서면서 과부와 그녀의 숨진 아들이 지나갈 수 있게 해주었을 것이다. 그 때 예수님께서 관에 조용히 손을 대시며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셨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거나 두 팔을 휘저으며 많은 무리를 멈추게 한다. 부모가 정해놓은 귀가 시간 때문에 문을 꽂 닫으며 시위하는 사춘기 아이들처럼 힘이 없는 사람일수록 더 크게 허풍을 떠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손가락 하나를 까딱하는 가벼운 제스처만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했던 로마 황제처럼 정말 힘있는 사람들은 그 힘을 별거 아닌 것처럼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예수님의 행동에는 고대 제왕의 미묘한 위엄이 서려 있었다. 그리고 곧이어 선을 이루는 절대적인 능력을 보여 주셨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자 숨진 청년이 그 말씀대로 일어나 앉아 말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모였던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고 말했다. 400년 간 이어온 침묵을 깨고 드디어 선지자가 오셨다. 800년 전 엘리야 선지자가 3마일도 채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곳에서 한 과부의 숨진 외아들을 살렸다. 엘리야는 여러 차례에 걸친 시도로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손쉽게 과부 아들을 살려내셨다. 엘리야보다 더 위대한 분이 오셨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멀리까지 두루 퍼졌다. 사람들은 그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상기하며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그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이제 다시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과부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셨다

장례 행렬에 가담한 사람들의 합세로 모인 무리의 숫자는 거의 두 배로 늘어났다. 그들 모두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다.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었다. 예수님께도 색다른 일이었다. 이런 기적은 딱 두 번 더 행하셨을 뿐이다.

예수님의 시선은 그 과부를 떠나지 않았다. 청년의 손을 잡아 관에서 나오게 도와 주신 다음 그의 어머니에게 데려가셨다.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으셨다. 또 이 놀라운 능력을 드러냄으로 자신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오는지도 전혀 고려하지 않으셨다. 자신이 일어난 기적 때문에 마음이 흠어지지도 않았다. 그 속에서도 사람들을 기억하셨고 이들의 육체적인 필요와 어머니의 심적 필요를 돌보셨다.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이셨으며 또 친절하셨다. 보통 친절한 사람은 그리 강하지 못하고, 강한 사람은 또 그리 친절하지 못하다. 그러나 예수님은 능력과 친절을 함께 보여 주셨다.

중요한 것은 효율성이 아니다

찰스 스펀전이 런던에서 유명한 설교자로 활동한 것은 이미 100년 이상이나 지난 오래 전 일이 되었다. 자상한 남편이고 훌륭한 신사였지만 그에게도 흠은 있었다. 그의 아내 수지는 남편이 설교를 하게 된 커다란 강당으로 함께 가던 때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우리는 택시를 타고 같이 갔어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남편 옆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했던 일이 기억나요. 그

런데 증계참에 올라선 남편은 제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깜빡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설교를 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남편은 제가 거친 사람들과 속에서 빠져나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임원들이 기다리고 있던 방으로 난 작은 쪽문 뒤로 사라져 버렸어요.”³⁾

익숙한 얘기로 들리는가? 많은 군중, 당황한 여자, 종교 지도자. 다른 점이 있다면 종교 지도자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에 골몰하느라 여자를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점이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위해 설교를 보류해 두었다. 그러나 스펀전은 설교를 위해 한 사람을 도외시켰다. 그 후에 벌어진 일은 더 심각했다.

“처음에는 정말 황당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인자한 어머니에게 속상한 마음을 털어 놓았어요. 어머니는 제 남편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며 하나님께 그의 전 생애를 헌신했기 때문에 절대로 남편에게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현명한 조언을 해주셨어요.”

나중에 집으로 돌아온 스펀전은 아내를 찾을 수 없었던 것 때문에 화가 나 있었다.

“사랑하는 어머니께서 남편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자 남편은 제가 얼마나 화가 났었는지를 말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그런 다음 무엇보다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면서 어머니가 하셨던 것과 똑같은 조언을 해주더군요.”⁴⁾

하나님을 어떻게 끌어들이는지 볼 수 있을 것이다. 스펀전이 아내를 도외시한 것은 하나님 때문이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그의 아내

는 남편과 어머니 모두에게 설교까지 들어야 했다. 이 일을 통해 스펀전은 하나님을 전혀 보여 주지 못했다. 대신 하나님을 아내를 돌보지 못한 자신의 잘못을 무마시키기 위한 핑계거리로 삼았다.

스펀전과 내게는 공통점이 많다. 아내가 마음을 털어놓을 때 나는 아내를 ‘고쳐’ 주려 한다. 한번은 아내가 김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나는 “왜 그냥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요?” 라고 꾸짖듯 말했다. 그러자 아내는 “그렇게 해요. 매일 그렇게 한다구요.” 라고 대답하며 내 입을 막아버렸다.

또 한번은 아내의 기분을 중잡을 수 없었다. 장애를 가진 아이를 돌보는 일이 아내의 우정과 미래와 꿈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나는 잘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잘 도와 주는 데도 불구하고 아내는 내 사랑을 확신할 수 없었다. 나는 ‘숨진 아들을 살려내는 일’은 잘해냈지만 아내를 바라보고, 아내가 느끼는 것처럼 느끼고, 아내와 함께 걷는 일에는 시간을 내지 못했다. 대신 또다른 ‘죽은 아이’를 찾고 있었다. 내가 일에 몰두할 때 아내는 소외감을 느꼈던 것이다. 예수님의 친절은 내게 새롭고 ‘덜 효율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다. 사랑은 효율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엑손 발데즈(Exxon Valdez)가 알래스카 해안을 따라 수천 갤런의 원유를 유출했을 때 그 회사 대표는 피해를 살펴보러 가야 한다는 제안을 거절해버렸다. 시간을 낭비하는 일로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에게는 힘이 있었다. 그러나 친절하지는 않았다. 쓰레기 더미가 된 그 곳을 찾아가 거위 시체를 좀 거두어 냈더라면 그 마음이 좀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보여 주셨다. 보고 느끼고 도와 주는 것이다. 누군가를 도와 주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이 느끼는 대로 느끼기 위해 시간을 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냉랭한 사랑이 될 것이다. 그리고 바라보고 느낀다 해도 도와 줄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값싼 사랑이 될 것이다. 사랑은 이 두 가지를 함께 한다.